



희망을
↓
善
순환합니다

인천대학교 만원릴레이 안내

만원릴레이는 대학발전기금으로 **1만원**을 기부하고 그 기부가 이어지는 **기부 릴레이**를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후원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대학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만원릴레이

130만 인천시민의 염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립인천대학교가 이를 승화시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대학으로의 성장을 위해 만원릴레이 기부를 시작합니다!

기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경로를 통하여 연락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http://fund.inu.ac.kr> 이메일 fund@inu.ac.kr

전화 **032-835-8080, 9243** 팩스 **032-835-0839**



인천대학교 40주년 특집호 VOL. 80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 국립인천대학교
40주년 특집호 / vol.80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NNIVERSARY



QR 코드를 통해 인천대학교 소식을
이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INU

INCHON NATIONAL UNIVERSITY
MAGAZINE

40주년 특집호

VOL.80



04



08



20



24



26



28

ISSUE & INU

- 04 **Portfolio by INU** 총장 인사말
한층 뜨거운 혁신을 통해 찬란한 미래로, 세계로!
- 08 **Hot Issue** 20주년, 그 동행을 기록하다
- 12 **Global** 상상 그 이상의 세상
상상이 만든 내일의 세상

ACTIVE & INU

- 16 **Focus.1** 우리나라 '토종벌의 정체성'을 최초 규명하다!
- 18 **Focus.2** '스마트시티의 중심'에는 인천대학교가 있습니다!
- 20 **Spotlight** 연구, 그 걸음이 길이 되기까지
- 22 **Tip & Talk** 인문도시 인천, 산업화 100년의 역사에서
- 24 **Club** 미리 생각하는 내일
- 26 **Sketch** 신선한 변화 새로운 움직임

WITH I&U

- 28 **INU People** 인천대는 나의 자량이자 긍지!
- 30 **INU News**
- 35 **발전기금 소식**
- 36 **발전기금 현황**

인천대학교 소식지

2019년 40주년 특집호 통권 제80호

발행일 2019년 04월 발행인 조동성 발행처 인천대학교 홍보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 www.inu.ac.kr 기획·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032-423-1988

송도캠퍼스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제물포캠퍼스 22100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대길 319

미추홀캠퍼스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INU> 구독안내

인천대학교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 또는 전화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Tel 032-835-9493(인천대학교 홍보팀)

E-mail kjk97@inu.ac.kr



국립인천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최근 대학 사회는 급격한
기술발전과 취업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구성원 모두의
도움으로 우리 인천대학교도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 학년도를 맞아
우리 구성원 모두 행복과 보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우리 국립인천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는 해다. 길지 않은
역사지만, 학생들과 인천시민들이 함께 일구어 낸 변혁의 40년인 터라 그 의미는 더
깊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의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조동성 총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한층 뜨거운 혁신을 통해 찬란한 미래로, 세계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해 대학 동문 및
재학생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영 용어 중 PDS라는 말이 있습니다.
Plan(계획)과 Do(실행)과 See(점검/평가)
의 약자이죠. 이는 우리 삶에도 해당되는 이
야기입니다. 늘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 및
평가하되 그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면 수정
과 보완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의 계획과 실
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
에서, 새해란 항상 의미가 있죠. 그러니 인
천대 구성원 여러분! 지난해 미처 실행에 옮
기지 못한 계획이 있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
십시오.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체크해 올해
의 계획에 반영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국립인천대학교 가족 모두에
게 행복한 한해가 되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장 취임 후 3년 동안 국립인천대학교는
수많은 변화와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간 어떤 성과들을 이룩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혹, 우리 학교 직위표를 보신 적이 있으세
요? 총장직이 제일 아래 있습니다. 이는 상
하 구분 없이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존중하
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상징입니
다. 이 표를 시작으로 우리 인천대학교는 지
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크게 주체/목적/가치관/접근방법/문화/상
징 6개 부문에서 혁신과제들을 설정하고 실
행하였는데, 이미 이룩해낸 내용들도 있고
현재진행형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연되
고 있는 것도 있고, 중단한 것도 있습니다.
주체의 혁신은 12개 단과대학 및 21개 과·

팀 전체에서 혁신사례들을 발굴, 전 구성
원이 참여하고 실무진이 현장에서 주도하
는 Bottom-up 방식으로 변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주요 사안들이 총장
및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Top-
Down 형식이었다면, 현재는 학생들과 교
수들이 있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
원 선생님들이 혁신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
니다.

목적의 혁신 과제로 선정했던 Matrix
College와 예산배분기준 변경 또한 의
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세계 최초 사례여
서 더욱 주목 받고 있는 Matrix College
는 기업 및 사회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을 육성하겠다는 취지 아래 만든 제도로
서, 기업에서 직접 과목들을 설계하는 방
식입니다. 기업에서 설계한 과목들을 선택·이수하는 학생들은 취업 가능성도 높아

지니 여러모로 상생하는 교육제도이죠. 실제, Matrix College는 작년 교육부가 대표적인 대학교육 혁신 사례로 인용하여 크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학과별 예산배분기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학들은 각 학과에 배정하는 예산을 학생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왔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교육의 질적 수준을 고민하는 노력들이 등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은 각 학과의 학생 정원에서 그 학과가 개설한 과목 수강생 숫자로 예산배분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앞서 말한 Matrix College가 드러난 혁신이라면, 예산배분기준 변경은 혁신의 실체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강하면서도 조용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작년 교육부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년 76.8점 대비 4.4점이 올라간 81.2점을 획득하는 등 우수성도 입증했습니다. 더욱 괄목할

만한 사실은 두 개밖에 없는 법인국립대학군에서 인천대학교와 항상 비교가 되는 서울대학교의 81.3점보다 단 0.1점밖에 차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여 2018년에는 '미래 40주년 준비단'을 발족하셨습니다. 준비단의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전과 혁신의 역사로 빛어진 인천대를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장기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미래 40주년 준비단을 결성했습니다. 준비단은 연구, 교육, 예술, 사회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제2회 세계바이오융합포럼, 7월 3일 제3회 통일후통합 연구포럼, 7월 26일 제2회 일대일로 연구포럼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에는 우리대학

미래 40주년 준비단은
우리대학교의
발자취에 대한 재정립은 물론,
미래 40년을 위해 끈임없이
고민·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홈커밍데이가 개최 예정이며, 축제기간 동안에는 <IncheonMusic: Hic et nunc!>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고 수준 클래식 공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준비단에서는 우리대학 역사 산증인들 에세이를 모아 사진집과 함께 엮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미래 40년 비전 선포식'과 '인천대학 발전계획 INU VISION 2030' 등과 같이 인천대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교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도 다양하게 준비 중입니다. 한편 7월 3~5일에는 한자대학동맹(Hanseatic League of Universities) 제2회 세계회의를 우리대학에서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실사구시적인 새로운 세계대학평가시스템을 태동시키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기존 평가기관이 순수논문만을 대학평가기준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는 산업화와 특허, 창업 등에 대한 기여도를 세계대학 평가기준으로 채택하자는 것이 한자대학동맹의 취지입니다. 이는 우리대학 입장과의 결이 비슷하여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준비단은 우리대학교의 발자취에 대한 재정립은 물론, 미래 40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령인구 감소 및 변화하는 사회수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들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대학이 교육중심 대학교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중심 대학교로 발전하려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국립법인대학으로서 사회적·지역적 책무를 다하고 교육의 모범이 되도록 획기적인 정책이나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갈 것입니다.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과 연구의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전폭적 혁신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우수 교수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죠. 국제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학생들이 해외대학으로 진출하는 것이 대세였다면, 이젠 외국 학생들이 우리대학으로 들어오는 국제화에 더욱 비중을 두려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 1-2위 권으로 올라선 글로벌국제어학원을 통해 캠퍼스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외국인 교수 유치와 같은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노력도 꾸준히 병행해 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립인천대학교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1등은 유일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1등이 되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유일함을 갖출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일함'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존재적인 값어치는 어떤 것으로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천대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 많이 힘들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방안들을 치열하게 모색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강하고, 멋지며, 단 하나밖에 없는 대학, 국립인천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가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창의력



20주년 이후, 이제는
개혁과 변화의 정신이 필요하다.

동북아국제통상 학부장 박제훈 교수

1994년 8월 시립 인천대학 무역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1998년 동북아국제통상대학 설립을 기획하고 참여하며 이곳으로 옮긴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20년을 넘어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구조상 학령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요즘, 이에 대비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이상 장학금이나 유학 등의 혜택 위주 유인책으로는 우수학생 유치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졸업생들의 우수한 진로 사례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부 프로그램 자체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학능력과 동시에 경제통상 및 지역학 등 교과과정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자질은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는 능력과 교과서 지식에만 매달리지 않는 창의력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리면서 변화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슬기로운 응용적 개혁과 변화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20년 후의 SONAS 모습을 그려볼 때, 우수한 인재를 계속 충원하며 우리대학을 대표하는 명문 학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수 학생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할 강력한 의지력이 요구됩니다.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며 명문 학부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SONAS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새로운 20년을 향해 힘을 모읍시다.

edit — 주문수 photo — 이덕재, 인천대 홍보팀 제공

지난 2018년은 동북아국제통상학부가 개설된 지 20주년 되는 해였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20년을 지나온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발자취와 이들이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아를 넘어 유럽, 더 나아가 세계로 향하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를 따라 그 걸음을 조명해보자.

20주년,
그 동행을 기록하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



SONAS, 20년의 기록

우리대학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1998년 출범한 동북아국제통상대학(CONAS: College of Northeast Asian Studies)을 모태로 한다. 당시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에 응모하며 특성화된 신설 단과대를 설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안서가 작성됐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50억원 상당의 대우센터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이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약정서를 제출하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다. 2005년에는 교육부 물류통상 특성화사업 공모가 있었고 이 기회를 이용해 학부 단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유관 학과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하에 경제학과 및 무역학과와 같이 동북아국제통상학부(SONAS: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가 설립된다. 그리고 2014년, 수

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응모하며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부총장 산하 독립학부로 개편된다. 내부적으로는 기존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통상의 4개 전공을 동북아통상전공으로 통합하며 한국 통상이라는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한국 통상 전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학생이 입학해 오면서 향후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미래 성장엔진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2018년,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출범 2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학부장 박제훈 교수와 SONAS 20주년 학생 준비위원장 송민(14학번) 학생, SONAS 제20대 학생회 홍보부장 오세리(17학번) 학생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동북아국제통상학부가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 교수와 학생 입장을 넘어 SONAS를 사랑하고 아끼는 동반자로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멈추지 않고 더 성장하는
SONAS가 되길

SONAS 20주년 학생 준비위원장 14학번 송민

저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14년도 2학기, 우리 학부는 CK2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지역밀착형 글로벌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단으로 활동했고, 덕분에 러시아 모스크바, 일본 오사카로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북경에서의 2년은 제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20살이 되도록 비행기도 타본 적 없던 저는 우리 학부에서 지원하는 단기 어학연수와 유학을 거치며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는 여행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단순히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외국인 친구들, 유학 동기들을 만나 사람을 배우며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는 이름 그대로, 동북아라는 '지역학', 국제라는 '어학', 통상이라는 '경제학'을 모두 다루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가지 이상의 학문을 심도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배우는 학부로, 장래에 대한 선택폭이나 응용폭이 무척 넓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무기를 지닌 학부이니만큼, 항상 우리 학부에 대해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저는 영광스러운 SONAS의 20년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20주년 학생 준비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짊어진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스무 살이 되면 배움이 깊어진 성년이 되었다는 의미로 '약관(弱冠)의 나이'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20년이라는 시간은 성장하고, 뜻을 크게 이루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20살이 된 SONAS도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SONAS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사랑하며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내 20대를 채워준
동북아국제통상학부에게

SONAS 제20대 학생회 홍보부장 17학번 오세리

SONAS에서 지내오며, 큰 선물과도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 부족했던 저를 점점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선배들, 자신의 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주는 동기들, 나보다 더 나를 잘 챙겨주는 후배들까지, SONAS는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SONAS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 갔습니다.

사람들을 사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동북아국제통상학부라는 곳은 저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기숙사와 캠퍼스를 오가며 마주치는 사람들과 밝게 지내는 모습은 저를 또 다른 경험과 기회로 이끌었고, 이렇게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단순히 일본 여행을 계획하더라도 학내 커뮤니티에 일본으로 여행 간다는 글만 올리면 그곳에서 일하는 선배, 유학 중인 동기나 후배들이 연락하며 활발한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런 점은 SONAS만이 가진 매력이자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풍부한 장학제도 속에 SONAS 전 학생이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동고동락하는 덕에, 우리들은 그만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SONAS가 보유한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장학제도, 훌륭한 커리큘럼 등도 물론 큰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SONAS가 가진 큰 힘은 선후배 그리고 교수님들이 쌓아놓은 '사람'들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도움이 되어주는 동문 덕에 SONAS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냄새나는 SONAS를 가슴에 품고 모두 함께하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동북아 X 제2의 인생



힘이 되어주는 동문 인적 네트워크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높은 이상을
꿈꿉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이끄는 대학
인천대학교의 일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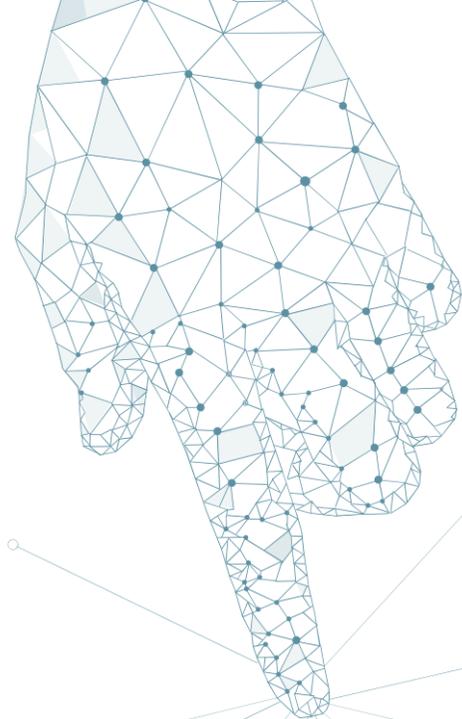


A WORLD BEYOND
IMAGINATION

상상이 만든 내일의 세상

2018 INU 글로벌비즈니스 컨퍼런스(GBC) 개최

우리대학 무역학과와 글로벌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 12월 12일 '해외지역연구를 통한 글로벌비즈니스 사업계획'이라는 주제로 2018 INU 글로벌비즈니스 컨퍼런스(GBC)를 개최했다. 그리고 우리대학 학생들은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며 그 역량을 드러냈다.



내일을 그리는 꿈과 열정

글로벌인재양성은 우리대학의 핵심 화두다. 그리고 그 중심엔 'INU 글로벌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있다. 우리대학 무역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올해 3회째 개최된 'INU 글로벌비즈니스 컨퍼런스'는 인천 지역을 비롯한 한국 경제 입장에서 글로벌비즈니스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략 및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경진대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장벽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해외시장을 개척해야만 하는 한국 경제의 절박한 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어 대회의 의미는 한층 커졌다. 학생들은 무역학과 이윤 교수의 지도 아래 심층적인 분석과 자료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글로벌비즈니스 전문가들로부터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독창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받는다. 계획서가 완성되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오랜 시간 꿈과 열정을 쏟은 만큼 학생들의 사업아이템은 실제 사업에 적용될 만큼 수준 높은 완성도를 갖췄다.

[TIP BOX] 글로벌비즈니스

글로벌비즈니스는 수출입, 해외 직접투자(Greenfield Investment, M&A, 지분 인수 등), 간접투자, 자원 개발, 건설, 과학기술협력 및 각종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때문에 글로벌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전략은 해외 시장에 대한 창업의 주춧돌이라 볼 수 있다.

대회 현황 및 향후계획

이번 경진대회는 2차례에 걸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9개 팀이 출전했다. 치열한 경쟁이 이뤄진 만큼, 각 팀들은 수준 높은 아이템을 선보이며 심사위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과 일본을 연계하는 쌀쌀대 사업, 한국 대학생들의 워킹홀리데이의 대표적 선호국임에도 불구하고 구직 등의 애로로 원성이 높은 호주에서의 구인구직 서비스업, 보석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얼리 렌탈서비스, 전자식 비데가 없는 싱가포르에서의 전자식 비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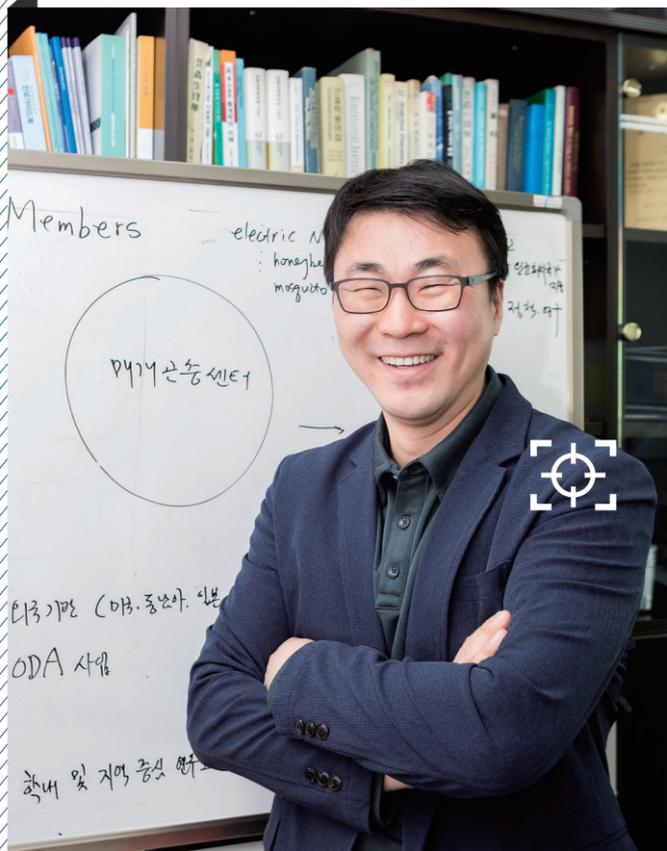
또 오염된 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샤워정수필터헤드 사업, 베트남에서의 대리운전과 저지우유 사업, 그리고 매우 건조한 캐나다에서의 가습기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현지에서 시장이 전혀 형성되지 않거나 초기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본 행사를 준비한 우리대학 무역학과 이윤 교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이번 경진대회가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혁신성장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천 내 산학연관 간의 건설적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의 글로벌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의 수준 높은 사업계획서는 다른 대회에서도 인정받으며, 우리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바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최한 '뉴비즈니스 모델링 사업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우리대학 2개 팀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인천소재 대학 31개 학생팀 중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이란 쾌거는 우리대학은 물론, INU 글로벌비즈니스 컨퍼런스의 중요성과 가치 또한 증명했다.



edit — 최진성 photo — 인천대 홍보포털팀 제공



우리나라 '토종벌의 정체성'을



근래,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권형욱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반가운 성과를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불분명하였던 우리나라 토종벌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처음으로 그 정체성을 규명해낸 까닭이다. 그리하여 이는 세계적인 꿀벌 분야 학술지인 <Journal of Apicultural Science> 최근호에 게재됐다.

Q. 최근 우리나라 토종벌의 유전체를 연구하여 고유의 혈통을 밝혀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연구를 하시게 됐나요?

A. 그간 우리나라 토종벌은 혈통, 즉 정체성이 모호하여 그냥 동양꿀벌 중의 하나로만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낭충봉아부패병(꿀벌 유충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일종)이라는 바이러스 발생으로 토종벌의 99%가 궤멸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후 업계 종사자와 연구팀들 노력 끝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언제 다시 낭충봉아부패병이 불어 닥칠지 모를 일이었죠. 우리 토종벌의 유전정보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유전체를 연구하면 종의 보존은 물론, 개체수를 증식하는 데도 도움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2017년 팀을 결성, 1년여 동안 유전자정보를 비교·분석하게 된 것입니다.

Q. 연구 결과 우리나라 토종벌은 여타 동양꿀벌들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얼마만큼 유사한지 궁금합니다.

A.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종벌은 여타 동양꿀벌들과 유전학적 차이점을 찾지 못해 지리학적으로 가까운 중국혈통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 토종벌의 미토콘드리아 내 전체 유전자를 중국, 대만, 인도, 일본 등 여타 동양꿀벌들과 비교하여 보니 확실하게 다른 혈통임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일본 토종벌과 유전변이도가 각각 2.57%와 2.58%로 나타났거든요. 이로 인해, 우리 토종벌도 *Apis cerana koreana*(한국토종벌)라는 학명을 갖게 됐으니 여러모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Q. 연구의 의의와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우리 토종벌의 족보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토종벌에 대한 정의가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토종벌 산업의 활성화 및 토종벌의 자원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 교두보

최초 규명하다!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권형욱 교수

가 될 것입니다. 꿀이라고 전부 같은 꿀은 아닙니다. 토종벌의 유전적 특징에 따라서 성분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질병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면 고부가가치산업의 소재로도 잠재성이 무궁무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저희 연구는 우리 토종벌을 어떤 방법으로 자원화시킬 수가 있는지 탐구하는 데에 필수불가결입니다.

Q. 그린빌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셨는데, 최근에는 어떤 주제들을 다루셨는지 궁금해요.

A. 신재생에너지들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건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광발전 시스템, 태양열급탕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등을 건축물에 도입하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증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린 캠퍼스의 시범건물이란 타이틀로 우리대학 부속 어린이집 내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Q. 이와 관련하여 어떤 추가연구들을 진행해갈 계획이신가요?

A. 우리 토종벌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면역증강제와 바이러스백신 등을 계속해서 연구·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계통 자원화도 병행해 연구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양봉장' 구축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첨단정보통신기술들을 양봉장에 적용시킨 컨테이너식 시설로서, 토종벌 생존에 요긴한 최적의 환경을 알아서 조성해 주는 똑똑한 자동양봉시스템입니다. 연구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문제발생 시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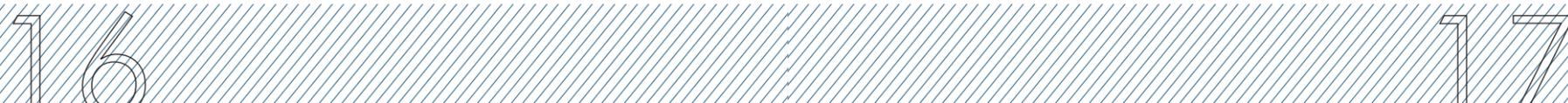


Q. 현재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장으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매개곤충에는 진드기나 모기 같은 질병매개곤충류와 꿀벌처럼 인간에게 이로움을 전달하는 화분매개곤충류가 있습니다. 우리대학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매개곤충들을 소재로 퇴치 및 활용 방법 등을 여러 학문들과 접목시켜 연구하고 있습니다.

Q. 곤충들을 기반으로 하는 생물자원 추적연구, 왜 필요한지 말씀해주세요.

A. 모든 생태계는 맞물려져 있습니다. 모기가 지구상에 없다면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의 유충은 해양생물들의 먹이기도 한 까닭이죠. 요컨대, 모기가 없으면 인류의 생존도 어렵게 됩니다. 이렇듯이 곤충 연구는 곧 사람 연구인 것입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곤충들도 우리 한국인과 생태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연구해야 우리 한국인들에게 도움되는 잠재곤충들을 발굴하고 자원화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팀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를 창의적인 스토리로 리드해가겠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중심’에는



인천대학교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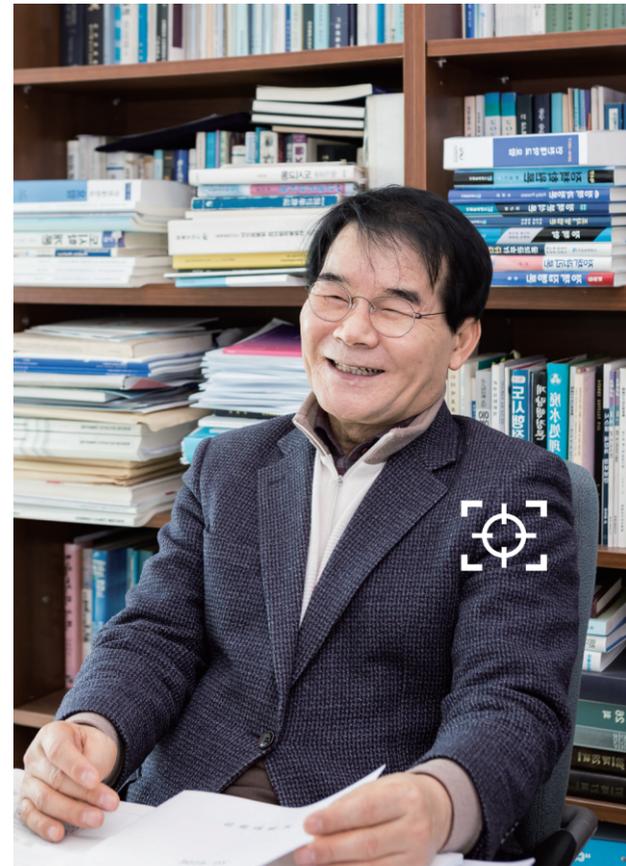
박주문 도시과학대학장

지난 2018년 12월 6일 인천 송도 앰배서더 호텔 아리랑홀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 우리대학 도시과학대(학장 박주문 교수)가 단과대로서는 처음으로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도시과학대는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중심 대학으로 주목받게 됐다.

단과대 최초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바야흐로 스마트시티의 시대다.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즉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각종 공공시스템에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시티라이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탓에 국내에서 해당 분야는 아직 전문화·학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시과학대는 지난 2018년 12월 6일 단과대학으로서 처음으로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도시과학대와 함께 도시과학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주최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변대학교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마트시티의 국제적인 전문가가 초청되어 관련 연구 성과 및 국제동향 등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와 같은 국제 심포지엄이 단과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일 프로그램들은 런칭 프레젠테이션과 세션1(스마트시티 건설: 다른



국가로부터 얻은 교훈), 세션2(스마트시티 발전 전략)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Mr. Thomas Sichelkow(덴마크), Prof. Guangchun GAO(중국), Mr. Jose Serrano(스페인), Dr. Patrick Safran(프랑스), Prof. Dohyung KIM(미국), Prof. Piotr Ziembicki(폴란드) Prof. Thomas KANG 및 Dr. Eunmi LEE(서울대), Christine Rim(SAP 한국대표) 등 7개국 10명의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펼친 후에 청중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마트시티에 관한 상호학술 및 정보교류 활성화와 미래 스마트시티의 연구역량 강화 차원에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행사준비과정에서 힘들었던 순간이요? 섭외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웃음). 마침 저희 행사 1개월 전인 2018년 11월 13~15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가 진행됐습니다. 여기 참석해서 여러 전문가를 만난 덕에 짧은 시간 내에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가 있었죠.”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는 전 세계 국가 및 도시 정부 정책결정자와 국제기구, 민간기업, 유관 분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제행사로서 현재 8회까지 운영돼온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전문 전시회이다. 박주문 학장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야말로 모범 스마트시티라고 한다. 사물인터넷과 드론,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등 각종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한데 모아 도시공공시스템에 연결, 바르셀로나만의 뉴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해낸 덕분이다.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핵심대학으로 우뚝 설 계획

그렇다면 해외 스마트시티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 박주문 학장은 선진 스마트시티에는 공통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특정분야에만 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와는 달리 여러 방면으로 첨단기술들을 융합시켰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다. 또한 이들 스마트시티는 친환경적 삶을 추구한다.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분류하고 이를 전기, 연료 등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인공지능 원격시스템이 그 일례이다. 무엇보다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스마트시티의 대부분이 시민참여 플랫폼을 매개 삼아 시스템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함이지. 스마트시티의 어떤 점이 불편하고 보완 및 개선돼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짚어낼 테니까요. 저희 도시과학대의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도 시민들이 발제자로 참석하는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구상 중입니다.”

참고로 ‘제2회 INU 도시과학대학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은 금년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주문 학장은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국제전문대학원을 개설하기 위해 여러 국책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다. 올해 안에 스마트시티연구센터도 구축하여 관련 국제 행사 및 연구들을 리드해갈 예정이다.

“표준모델로서 손색없는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인천시에 건설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전폭적인 지지 및 인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의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스마트시티니 적극적인 응원 바랍니다.”



edit — 이소영 (영국) — 이택재

연구, 그 걸음이 길이 되기까지

에너지화학공학과 김성훈 학생,
‘2018 ICPSE 최우수 논문발표상’ 수상

학술 연구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과정에는 끝없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 그러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기는 쉽지 않다. 무수한 실패가 뒤따르는 과정 속에 연구자들은 확신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은 우리대학 재학생이 있다. 에너지화학공학과 김성훈 학생 이야기다.

방법을 찾는 걸음

‘새로운 에너지원’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들린다.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기에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때문에 다양한 연구들이 이미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었기에, 김성훈 학생 또한 이 주제에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 건 당연했다.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욕심은 아니었다. 그는 그간 진행해온 여러 과제 속에서 착안점을 찾았다. 현재 산업 영역에서 활용하는 부생가스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합성연료를 생산하는 방법은 없을까. 쉽게 말해 현재 산업현장에서 한번 태우고 버리는 에너지 찌꺼기를 재활용해 또 다른 열원과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

유레카! 길을 발견하다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찾았으니 바로 연구에 들어갔다. 그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스펜 플러스 상용공정모사기 프로그램을 활용해 끝없는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그마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에 매진, 결국 원하는 답을 얻어냈다. 분석 결과 그의 연구는 충분히 상

용화 가능하며, 기존의 부생가스 활용 전략들보다 앞선 에너지 효율을 증명할 수 있었다. 새로운 에너지원이라는 매력적인 키워드에 대한 하나의 길을 발견한 것이다.

사실 그는 오랜 연구 기간을 보내며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믿음보단 불신이 스멀스멀 그를 덮쳐 학문에 회의감이 들 때도 많았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담당 김지용 교수님은 그에게 때론 따끔한 일침으로, 혹은 부드러운 응원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주변 친구들과 가족의 격려에 앞을 향해 걸을 수 있었다.

명확한 꿈, 치열한 노력

고무적인 연구 성과에 힘입어 그는 관련 논문을 준비했고, 이 논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학과 측은 그를 전력 에너지 시스템 구성 등을 발표하는 에너지화학공학 학회인 ICPSE(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Science and Engineering)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영어로 자신이 없던 김성훈 학생은 영어 구술 발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승부욕 또한 강했던 그는 남들보다 모자란 만큼 남들보다 더 준비하기로 했다. 학회를 위해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만 3주가 걸렸고, 대본을 쓰는 데 또 1주가 걸렸다. 그리고 발표를 연습하는데 2주를 썼다. 발표 연습에서는 리액션과 시선처리, 어떤 문장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까지 상세하게 연습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이번 2018년 학회에서 그는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학업적 성취를 넘어 그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연구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이 명확해졌다. 먼저 취직해 돈을 벌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느꼈던 불안감들이 일순간에 불식됐다. 노력을 통해 이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만큼, 그는 앞으로 연구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그는 후배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한다. “대학생이 나아갈 길은 다양하겠지만 크게 취업과 학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취업도 좋고 학업도 좋다. 우선순위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영역으로 가게 되더라도 두려움을 떨치고 도전해보라.”고.

2018 ICPS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Science and Engineering 2018)

2018 ICPSE에는 약 25개국의 논문 발표자들이 참가했으며, 김성훈씨는 ‘부생가스 기반 메탄올 병산 생산 시스템 개발 및 기술 경제성 평가 (Thermodynamic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polygeneration system of methanol, power and heat from residue gases of a steel industry)’라는 주제의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edit — photo — 인터뷰



인문도시 인천, 산업화 100년의 역사에서

인천의 원도심 산업유산과 가치 조명

edit. 윤현위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치나 경제와 같이 역사에 기록되는 거대한 변동 이외에 생활사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은 최근까지만 해도 기록의 대상이나 영역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것이 소중한 기억의 한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곤 한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애경사가 철거되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에서도 도시의 흔적들과 기억들이 많이 지워져 왔다. 오늘은 그 중에서 어쩌면 없어질지 모르는 오래된 인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산업도시의 초석, 인천

산업도시 하면 보통 울산, 구미, 창원, 가깝게는 안산 등이 연상되지만 인천은 그보다 앞선 산업도시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인천은 공단이 들어서기 이전에도 대규모의 공장들이 이미 있었다. 인천은 본격적인 산업화정책 이전에도 산업도시였다. 1931년 중일전쟁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가치가 커지면서 일본군부와 일본의 산업자본은 인천에 군수산업 중심의 산업시설들을 짓기 시작한다.

월미도 입구의 대성목재, 인천역 뒤의 대한제분, 송현동의 두산인프라코어, 만석동의 동일방직 등 이런 공장들은 규모가 매우 큰 공장이라는 점 이외에도 모두 일제강점기에 가동이 시작된 적산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과 사명이 바뀌긴 했어도 현재에도 일부를 제외하고 가동 중이다.

시대의 변화, 사라진 역사

1960년대부터 진행된 산업화 정책에 의해 염전이었던 주안이 매립되고 부평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조성되었다. 이를 서울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경인고속도로이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조성된 구로-부평-주안공단의 합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지역인 경인공업지역이라고 배웠다. 경인공업지역의 한 축인 인천은 포항과 여수를 연결하는 남동임해공업지역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사람이 늙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공단도 늙는다. 2000년 이후 산업시설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하면서 인천의 산업시설은 조업을 중단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시설들을 보유한 지역들이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아파트단지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주안과 부평공단도 구조고도화란 이름으로 공장을 상업시설로 변경하고 있으며 인하대 옆에 있던 과거 SK저유소는 지금 거대한 아파트단지로 변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래된 공장과 공단은 외지에서 인천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인천을 확장시킨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급변해 생산시설들이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기업들이 주력산업을 변경하면서 대규모 공장들은 이제 과거의 활기찬 모습을 잃어버린지 오래다. 만석동의 동일방직과 송현동의 일진전기도 직접적인 생산은 중단한 채 새로운 용도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단위 고층아파트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의 흔적과 기억들은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도시에는 끊임없이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파트만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적 재산의 사용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도시의 부족한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둘러선 안되고 소수의 의견만으로 일이 진행되어도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천천히 모두가 고민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INCHEON 100



미리 생각하는 내일

생명사랑 서포터즈 10기 '미리내'

지난 2018년, 최종 활동보고회를 마지막으로 '미리내' 모임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됐다. 미리내는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추진하는 생명사랑 서포터즈 10기로 선발돼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미리내 손정엽 부팀장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4

edit — 주문수 photo — 이덕재

생명사랑 서포터즈 10기

어제를 함께하다

미리내는 '미리 생각하는 내일'의 줄임말로 내일이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활용해 탄생한 이름이다. 미래를 미리 계획하자는 의미와 동시에 그 미래는 나 자신의 일이라는 뜻이다. 사회복지학과 6인의 합작으로 탄생한 미리내는 책임 있는 성 가치관 확립과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단체로 활동했다. 지난 1년간 미리내는 지역 사회 및 우리대학 캠퍼스 내에서 온라인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한 교육 활동,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교육 자료 제작과 실제 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미리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된 카드 뉴스는 임산부 배려 방법과 다양한 생리용품, 올바른 피임 방법 등 매주 다른 주제의 성 지식을 담아 높은 조회 수를 달성했다.

오늘에 선보이다

미리내는 오프라인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학 내부 축제, 행사 등에서 부스를 마련해 직접적인 피임 방법 퀴즈, 피임 도구 체험 등을 선보였다. 지난 11월에 열린 '사랑한다면 계획하라' 축제는 그동안의 활동을 집대성한 행사였다. 러브 상자(암막 상자 속 피임 도구를 만져보고 무엇인지 맞춰보는 프로그램), 러브 젠가(젠가에 피임 방법 질문지를 부착해 뽑아낸 젠가 속 질문의 정답을 대답하는 프로그램), 러브 퍼즐(다양한 퍼즐을 통해 피임 방법을 맞추는 프로그램) 등 체험 활동과 그간의 카드 뉴스를 홍보물로 만들어 전시하며 참여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중·고등학교, 청소년 쉼터, 야간학교 등을 방문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피임방법과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기도 했다. 미리내 멤버들은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들의 현장 강의 견학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보고 배운 내용과 얻게 된 자료를 연구하고 회의해 직접 교육자료를 만들었고, 청소년에게 맞도록 재가공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내일을 준비하다

이들에게 지난 1년은 무엇 보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만큼 힘든 점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지역 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다. 지하철 역사나 학교 등 협조가 분명하 곳이면 협조 요청 후 행사를 진행했지만, 변화가 등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진행할 경우 주변 상권 상인 등의 항의로 프로그램 진행 중 급하게 철수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만큼 보람도 함께했다. 모 중학교에 청소년 교육을 나갔을 때, 한 학생이 먼저 알아봐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먼저 인사해준 학생은 과거 미리내가 청소년 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을 때 만났던 친구라고 했다. 미리내 멤버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그 학생은 이들의 교육내용까지 떠올리며 매우 반가워했다. 이처럼, 미리내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생들에게 성을 더 올바르게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경험이었다.

이제 미리내 학생들은 2018년 활동을 모두 끝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리내 손정엽 부팀장은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미리내의 활동을 기억해 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 보다는 자신들의 슬로건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리 생각하는 내일'과 '사랑한다면 계획하라', 즉 미리내가 추구한 가치처럼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25



미리 생각하는 내일

신선한 변화 새로운 움직임

인천대 총학생회 NEW BOUNCE

우리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총학생회가 탄생했다. 제36대 총학생회로 당선돼 다양한 활동으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NEW BOUNCE 이야기다. 이들은 학생 복지 개선, 학교 공간 활용, 교육 환경 조성, 학생 간 소통 강화, 교내 문화 발전 등 다방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특특 튀는 매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하고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최재봉 총학생회장의 하루 일정을 따라 그들이 꿈꾸는 학교, 그들이 만들어가는 학교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자.

제36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최재봉

회장님, 오늘 홍보영상 촬영 하셔야 합니다.

우리대학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라는 NEW BOUNCE,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왜 안 쓰던 말투 쓰고 그래?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운영 중인 NEW BOUNCE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대 총학생회 'NEW BOUNCE' 입니다~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튜브 영상 제작에도 힘쓴다.

심장이 BOUNCE BOUNCE 두근대~

READY~ ACTION!

00:10 / 2:00

신입생 환영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

2019년 우리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회를 준비 중이다.

웃어~

NEW BOUNCE는 SNS를 통한 학생들과의 소통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친구야~차 지나간다!
옆으로 조금만 붙어서 걸을까?(친절친절)

반짝 반짝 반짝

우리는 인천대학교의 활력소 NEW~~~~! BOUNCE 입니다~!

여기서 잠깐!

안돼~안돼~

깨끗한 교정을 위해 조금 참아주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교수님을 비롯한 인천대 구성원들과 협업하고 조언을 얻는다.

인천대의 LOVE~
흡연부스~

흡연은 정해진 흡연장소에서 부탁드립니다!

인천대 파이팅!

올 한해, NEW BOUNCE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END

edit - 최진성 photo - 이덕제



인천대는 나의 자랑스러운 긍지!

제16대 총동문회장 이재영

■ 법학과 83학번인 이재영 총동문회장은 1980년대 국립인천대학교와 격동의 세월을 함께한 학원민주화의 산증인들 중 하나다. 우리대학에 대한 애교심과 자부심이 남다르게 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올해 제16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를 만나 인천대학교의 지난 발자취와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천대와 생사고락 함께한 산증인

최근 우리대학 총동문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제 16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영 동문(법학과 83학번)은 감회가 남다른 듯 뜨거운 각오를 다졌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1980년대 초, 학원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주역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은 사학에서 시립화를 거쳐 국립대가 된 특수케이스입니다. 특히 인천대가 시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던 학원민주화운동은 우리 학생들과 인천시민들이 힘을 합쳐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역사죠. 그래서 선지 막상 총동문회장이 되자 지난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면서 형용하기 어려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재영 총동문회장이 인천대에 입학했던 1983년은 그야말로 동토(凍土)의 시대였다.



동문들의 참여 및 조직 체계화를 통해 장학사업 또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사회적으로는 신군부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이었고, 학교 내부적으로는 선인학원 설립자의 각종 비리 및 전횡으로 학원민주화운동이 태동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1981년 설립자는 구속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분쟁의 한 가운데 던져져 있었다. “설립자의 구속 이후 정부에서 신규 이사진을 구성했는데 우습게도 전부 설립자가 임명했던 사람들이었죠. 학교 운영권이 다시 설립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실제 1985년 10월, 우려했던 대로 설립자가 고문으로 복귀했고 이에 학생들도 분연하게 들고 일어섰죠. 이를 탄압하기 위해 설립자와 측근들은 무력까지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었죠.” 1985년 제2대 총학생회장으로 추대됐던 이재영 총동문회장은 학원민주화와 재단 정상화를 위해 항상 선봉에서 학생들을 이끌었고 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화항쟁’과 맞물려 더 뜨겁게 타올랐다. 5.3 항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다음으로 가장 컸던 민중투쟁이었으며, 시위현장에는 인천대생들도 늘 함께였다. 그리하여 그해 10월 인천대에 무기한 휴교령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마침내 선인학원 사태가 표면화되었다. “이후 인천지역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천대의 민주화와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펼쳐졌고 인천시민들은 우리대학 시립화와 공립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전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 이상 참여했다더라고요. 이로 인해 우리 인천대가 투쟁 13년 만인 1994년에 시립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인천대의 시립화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일구어낸 기적적인 성과였다. 이재영 총동문회장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깊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edit — 이소영 photo — 이덕제

국내 대학 중에 유일하게 학원민주화를 이룬 덕에 최근 ‘인천대 학원 민주화기념사업회’가 발족됐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인 동시에 미래의 안내자입니다. 학교의 건 강한 발전과 눈부신 도약을 위해서는 학교의 역사부터 제대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대학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 바로 알고 자긍심을 가져주길 모든 후배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모교발전 위해 더욱 결속 다질 것

우리대학 졸업동문 수는 약 6만여 명. 그렇지만 실제 활동하고 있는 동문 수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재영 총동문회장은 소통+참여+협력 3가지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조직의 탄탄한 결속을 목표로 삼았다. “동문회의 존재 이유는 모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지요. 이를 가능하게 하려거든 동문회의 조직력이 중요한데, 우리 동문회는 아직 구심점이 약한 편입니다. 곳곳으로 흩어진 동문들을 찾아서 인천대동문회 깃발 아래 모일 수 있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저의 역할이자 우리 동문회의 시급과제라고 생각해요.” 아울러 그는 지역발전에도 힘을 보태리라 약속했다. 인천시민들과 함께 빛은 대학이니 만큼 동문회와 우리대학이 가진 자원들을 인천시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이 그의 설명. 이재영 총동문회장은 동문들의 참여 및 조직 체계화를 통해 장학사업 또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개의 법인체를 경영하고 있는 그는 현재, KT그룹 미디어계열의 사외이사기도 하다. “재학 중인 후배님들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고 다채로운 경험들은 꿈도 꾸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호연지기 정신은 잃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멘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문회의 문을 두드려도 좋습니다(미소). 우리 선배들은 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2019년도 시무식 개최

인천대학교는 2019년 1월 2일, 오전 11시 교수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 주요 보직교수 및 직원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유공자 표창, 조동성 총장 신년사, 신년인사회 등으로 진행됐다. 조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정부의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 평가를 받은 대학 중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던 한 해였다. 인천대 평가등급은 ‘보통’에서 ‘우수’로 향상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총장은 “행복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꿈은 준비, 즉 공부해야 실현된다. 인천대를 행복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랑이 충만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신년사를 마쳤다.



인도네시아에 한국어학당 제6호 분교 설치

2018년 12월 13일, 인도네시아에 제6호 한국어학당 분교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인천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KIEC(한국교육문화원)와 한국어학당 해외분교설립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현판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인도네시아 교육부 및 해군재단, 한국어학당 분교설립 협정서를 체결하는 5개 대학 총장단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6호 분교를 설치한 KIEC재단은 인도네시아 트리삭티대학교, 보고르대학교 등 5개 대학과 연합해 한국으로 유학을 원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보급과 함께 한국 유학의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대는 전 세계 곳곳에 분교를 포함한 교육거점을 확보해 한국어교육의 세계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회 글로벌 바이오-융합 포럼 성황리에 개최

2018년 11월 22일, 송도캠퍼스 2호관 교수회관에서 ‘2018 제1회 글로벌 바이오-융합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인천대학교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한국바이오협회, 혁신인력개발센터가 후원하는 행사다. 오전행사는 박태현 교수(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이민섭 대표(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유영제 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했으며, 오후행사는 발표주제별 <바이오와 인문, 사회, 문화의 융합>, <바이오와 의학의 융합>, <바이오와 예술, 체육, 공학의 융합>, <바이오와 이학, 공학의 융합> 4개 세션으로 총 30개 주제의 발표로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현재 인천대학교가 집중연구대학 (Focused Research University)으로 성장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의제 중 하나인 바이오 분야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인차가 될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교류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로, 각 학문 분야에서 바이오라는 의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견을 나누었고, 학문의 지평을 넘어 미래 바이오사회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융합연구가 도출되는 매우 의미 있는 장이었다.

2018 INU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은 2018년 12월 6일, 송도 경원재 엠배서더호텔 아리랑홀에서 ‘2018 INU 도시과학대학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스마트시티의 국제적 사례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와 WWF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손성환 이사장, 조동성 인천대학교총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청장, 중국사회과학원장 및 스마트시티 관련 학생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주요 행사로는 런칭 프리젠테이션과 세션1(스마트시티 건설: 다른 국가로부터 얻은 교훈), 세션2(스마트시티 발전 전략)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덴마크, 중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폴란드 등 7개국 10명의 발표자가 프리젠테이션 진행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스마트시티 관련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도시과학대학 박주문 학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 행사가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유익하고 많은 교훈을 도출해 냈고, 스마트시티 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제 심포지엄 행사를 통해 도시과학대학이 스마트시티의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김장균 교수, 연구결과 미국 국립 아쿠아리움 전시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김장균 교수의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연구결과가 미국 국립 아쿠아리움(The National Aquarium)에 전시됐다. 김장균 교수는 인천대학교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의 연구 일환으로 대규모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활용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와 함께 미국 연구자들과 블루카본 대량양식 및 생태계서비스 기능 평가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장균 교수는 한미 공동연구를 통해 해조류 해상양식 조건 확립 및 먹거리 등으로의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런 연구결과가 아쿠아리움에 전시됐다.



인천대학교 SBS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인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2018년 11월 8일~9일 이틀간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2018 공학페스티벌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 참가해 인천대학교 SBS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임지혜, 김은서, 석희연, 신유진, 정수림, 이수아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인천대학교 SBS팀(지도교수 최병조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은 ‘잡아라 순간 포착’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학년생들로 구성된 SBS 팀원들은 “앞으로도 전공지식과 창의설계경진대회를 준비하며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잡아라 순간 포착’은 라즈베리파이 카메라를 이용해 초고속카메라를 구현한 작품이다. 고가인 단일이미지 초고속 카메라에 반해 다중 이미지센서를 이용 초저가로 초고속 카메라를 제작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했다. 가격을 비롯한 이미지센서의 확장에 따른 FPS변화가 유연하여 초고속카메라의 대중적인 보급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학교육혁신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융복합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공학인재양성의 성과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인천대 조동성 총장 대학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조동성 인천대 총장이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다. 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사업의 공신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대학인증평가는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면 각종 지표를 평가해 일정 수준의 교육 요건을 갖췄을 경우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주관하는 이 인증평가 결과는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조동성 총장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선출



**생활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인천대학교 생활원은 2018년 11월 22일 제2기숙사 앞 야외 테라스에서 기숙사생 및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 만들기, 행복 나누기, 행복 맛보기란 주제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기숙사생 및 직원들은 김치 600kg 분량의 김장을 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에 있는 '빈센치아의 집(모자보호 시설)', '길벗 그룹홈(장애인보호시설)', '사베리오의집(부자보호 시설)'에 김치 전달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행복을 나누었으며, 저녁식사 시간에는 김치와 보쌈, 두부를 기숙사생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 맛보기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많은 유학생이 참여한 한국 음식 문화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내·외국인 기숙사생 및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자리가 됐다. 김장균 생활원장은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어려운 이웃들이 울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희망과 용기를 갖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이웃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인천대학교는 2018년 11월 30일,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서 지역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회봉사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는 교직원 및 대학생 7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아직도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많고, 그중에서도 지형이 가파른 곳이 많아 소량 배달은 연탄가게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인천대학교에서는 배달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이번 연탄 나눔 행사에서는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정한 15가구에 총 4,500장의 연탄과 인천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모금한 모금액 100만 원이 동절기 난방비로 함께 전달됐다. 추운 날씨에도 나눔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보람차다."라고 말했다.

**에너지화학공학과 김성훈 학생 국제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 수상**

에너지화학공학과 김성훈 씨(석사과정)는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2018 ICPS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Science and Engineering)에서 최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회는 약 25개국에서 논문 발표자들이 참가했으며, 김 씨는 "부생가스 기반 메탄올 병산 생산 시스템 개발 및 기술 경제성 평가 (Thermodynamic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polygeneration system of methanol, power and heat from residue gases of a steel industry)"라는 주제의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본 연구에서 김 씨는 산업의 다양한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인류에 유용한 고부가 가치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설계 및 분석하기 위한 공정 합성 및 최적화 기법을 소개했다. 특히 제철 산업

부생 가스를 이용해 석유화학산업의 주요한 화학제품인 메탄올과 전기를 병산 생산하는 공정을 설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부생가스 활용 전략보다 앞선 에너지 효율 및 경제성을 증명했다. 김 씨는 신재생에너지 및 비전통 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등 미사용 탄소 자원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공정 개발 및 실증화에 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예술체육대학 이호명 명예교수 기증전시회 개최

인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이호명 명예교수의 기증전시회가 2018년 11월 20일 교내 ART SPACE IN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이호명 명예교수가 개인전 및 초대기획전 17회, 국내외 그룹전 450여 회에 참여하여 창작한 작품 100여 점을 후대의 미술교육자료를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기증하였고, 이를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 이호명 명예교수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1년 인천대학교에 임용되어 제80회 전국체육대회 CI디자인, 제1회 국제디자인 페어 추진위원장, 사)인천광역시미술초대작가회 초대작가, 사)대한미술협회 시각디자인대회 회장을 역임, 2014 대한민국디자인교육대상 수상(사단법인한국디자인총연합회) 등 활발한 대외활동과 더불어 37년간 인천대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적을 쌓아 왔다. 이호명 명예교수는 전시회 인사말을 통해 "다시 한번 이번 전시를 위하여 애써주신 인천대학교 관계자분들에게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끼고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사랑을 보낸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2018 홀몸어른 지원
활동'**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역 사회에 관심을 보이고 어려움을 나누고자 해외원조 민간단체인 (사)은해피와 함께 10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식당에서 "2018 홀몸어른 지원 활동"을 펼쳤다. 센터와 은해피는 60여 명의 인천지역 홀몸어른들에게 추워지는 날씨를 대비하여 준비한 방한용품 전달하고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행사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삼계탕 뼈를 발라 어른들의 식사를 도우면서 손자 손녀처럼 대화를 나눔으로써 나이든 어른들이 잠시나마 젊은 세대와 교감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글로벌사회공헌단,
위안개초등학교 신축교실 준공식 실시**

2019년 1월 9일, 라오스 비엔티엔에 있는 위안개초등학교 (Viengkeo Elementary School)에서 인천대학교 INU(I&YOU) 글로벌 사회공헌단 단원들과 함께 신축 교실 준공식을 가졌다. 인천대는 세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UN이 정하여 세계 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학에서도 국제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활동의 하나로 "INU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동계부터 2018년 동계까지 총 3기에 걸쳐 라오스 비엔티엔에 있는 위안개초등학교의 교실을 신축해주는 건축봉사와 진로체험 및 예체능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교육봉사를 중심으로 한 "자력·자생·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 위안개초등학교는 라오스 비엔티엔의 작은 마을로, 산속에 거주하던 소수 민족의 강제 이주로 인해 도시의 외곽에 삶의 터전을 잡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마을이다.

이러한 소수민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와 취학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학교 건물이 비좁고 교실도 부족하여 한 교실에 60여 명의 학생이 앉아 비좁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수년 전부터 외부(외국)로부터의 도움을 받아 교실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였지만 큰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람처럼 교실 증축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에 국립인천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이곳 라오스 비엔티엔의 위안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대학교가 위안개초등학교의 교실 3개짜리 교실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해주고 방학마다 봉사단을 파견하여 건축 일부를 담당하였다.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부문 교육부 장관 표창

인천대학교는 2018년 11월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산학협력 EXPO”에서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부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인천대학교는 지난 3년간 70개의 창업교과목을 개설하여 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교육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14개의 창업동아리 발굴하여 72명의 학생창업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교내 창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장학금 등 창업관련 학사·인사제도 구축은 물론 지역 창업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지역 창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다. 창업지원단 김관호 단장은 “인천대학교가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부문에서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총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창업지원단 직원들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들의 노력 그리고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대학 창업, 지역 창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대학 취업·창업 역량 평가에서 국공립대 1위 차지

인천대는 국공립대 중에서 단연 돋보였다. 종합순위에서 국공립대 29곳 중 1위에 올랐다. 대학 종합순위로는 전체 6위다. 전체 9위를 차지한 서울대보다도 앞섰다. 창업 학생수, 창업지원액 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대 창업지원단 설립 이후 7년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 수는 218개에 달한다. 인천대는 물류, 기계, 전자 등 특성화 분야와 송도국제도시의 역량을 결합해 청년기술창업자 육성과 지속적 성장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 9월에는 공동 작업 공간인 ‘스타트업 라운지’를 증설하여 창업하기 좋은 최우수 대학으로 발돋움했다.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SCIE 논문 게재

컴퓨터공학부(컴퓨터비전연구실 소속) 4학년 이성호, 김명윤 학생은 2018년 12월 “Learning Discriminative Appearance Models for Online Multi-Object Tracking with Appearance Discriminability Measures”라는 제목의 SCIE 논문을 IEEE Access(IF:3.557, Q1) 공동1저자로 게재하였다. 이성호, 김명윤 학생은 실시간 다중 객체 시스템에서 occlusion에 강인한 appearance 모델을 온라인 학습하기 위하여 subspace learning 기반의 PLS(Partial Least Square) 방법을 이용하여 분별력 있는 appearance 모델을 개발했다. 또한, appearance 모델의 분별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Appearance Discriminability Measure3s)을 개발하여 추적 성능 및 수행 속도를 개선하였다. 실시간 다중 객체 시스템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할 때, occlusion에 강인하고 성능 및 수행 속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도 프랑스학회 회장으로 김용민 인천대 교수 취임

인천대 불어불문학과 김용민 교수가 2019년도 프랑스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프랑스학회는 1983년 설립되어 올해로 36년을 맞이하는 학술단체로서, 프랑스어문학을 근간으로 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 예술 등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에 관련된 제반 학문 분야의 연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한국 연구재단 등재지인 <프랑스학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김용민 교수는 인천대 교수협의회 회장, 인문대학 학장 및 문화대학원 원장, 교수회 회장과 평의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임기는 201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이다.

발전기금 소식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장학증서 1차 수여식 개최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은 3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교수회관에서 ‘2018학년도 2학기 제1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국어국문학과 방수진 학생 등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에 열의가 높은 112명에게 107,360,000원이 전달됐다. 특히, 오늘 수여식에는 기부자 네이밍 장학금을 기부한 김현기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이사과 홍은숙 기부자도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기부자 네이밍 장학금은 기부자의 명의를 딴 장학금 수여 캠페인으로, 재학생 전체가 장학금 수혜자가 되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직업전문학교, 발전기금 기탁

인천직업전문학교가 우리대학에 대학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 조동성 총장, 양운근 발전기금 상임이사, 유선 인천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김형택 평생교육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학교 본관에서 발전기금 기탁식이 진행되었다. 인천직업전문학교는 2010년부터 총 425,000,000원을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하였으며, 주로 장학금으로 지원되었다. 이번 기부금은 미추홀구 출신 우리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조동성 총장은 “인천대학교를 생각하는 인천직업전문학교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장학증서 2차 수여식 개최

발전기금 재단은 2018년 12월 4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교수회관에서 ‘2018학년도 2학기 제2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국어국문학과 한지수 학생 등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에 열의가 높은 52명에게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특히, 이번 수여식 행사에는 기부자 네이밍 장학금을 기부한 최영숙님의 유가족으로 최강수, 최강국(최희기선 전 인천시장 아들) 두 분이 참석하여 최영숙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또한 최병조 교수(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전신하 교수(영어영문학과), 최수봉 교수(물리학과)도 참석하여 장학금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은 2003년 설립돼 기부금 및 운영수익 등을 통해 31회에 걸쳐 28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 2학기에는 1, 2차로 나누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총 1억5천2백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재단법인 인천대학교발전기금, 예우 행사 개최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은 1월 29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고액기부자 예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예우 행사에는 양운근 발전기금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용정장학금을 기부한 김현기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이사, 인천직업전문학교 유선 이사장, 김유신, 김장성, 김주영, 민천기, 이군익, 이무영, 이성욱, 이정식, 이정연, 임남예, 전무홍, 채재우, 최강수, 추성호, 황민식 등의 많은 기부자가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예우 행사는 소규모로 진행하여 기부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을 위한 아이디어를 서슴없이 제안하는 자리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은 2003년 설립돼 기부금 및 운영수익 등을 통해 32회 29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2018년에는 378명의 학생에게 총 327,810,187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기부현황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주)건강과망	기업	1,000,000
(주)바이텍테크놀로지	기업	1,000,000
(주)스펙셜케미스트리	기업	3,000,000
(주)씨제이이엔엠	기업	1,000,000
(주)에그엔프로그래밍	기업	500,000
(주)에스피지	기업	9,000,000
(주)올인원시스템 (이무영)	기업	100,000
(주)인하ENT 박창석	기업	10,000,000
(주)진성엔텍/이순득	기업	300,000
(주)한마/이정식	기업	300,000
(주)현대자동차블루앤즈 서인전서비스	기업	300,000
(주)호박명굴	기업	800,000
INU학우사랑(2019-1)	단체	1,100,000
가은종합물류(주)-김삼현	기업	200,000
강민균	동문	100,000
강석훈	교원	10,000
강승택	교원	10,000
강우철	교원	10,000
강현철	교원	300,000
강해진	동문	1,000
고덕봉	직원	30,000
고민정(조교)	조교	90,000
고지훈	동문	10,000
고현수	직원	10,000
곽문선	조교	300,000
구경현	교원	300,000
구상우	동문	10,000
구주원	동문	10,000
구태환	교원	75,000
국민정	직원	10,000
권미주	직원	10,000
권영산	개인	300,000
권오중	교원	60,000
권재현	교원	3,000,000
권형욱	교원	2,010,000
김경우	교원	300,000
김경아	조교	30,000
김관호	교원	150,000
김광택	교원	10,000
김교홍	동문	150,000
김규만	동문	90,000
김규원	교원	30,000
김근찬	동문	100,000
김기만	직원	40,000
김남혁	동문	10,000
김도건	동문	60,000
김도훈	동문	1,000
김동환	직원	50,000
김민규	동문	10,00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김민희	단체	1,000
김배연	교원	10,000
김부용	교원	100,000
김상현	동문	300,000
김석우	동문	300,000
김수진	교원	10,000
김숙진	동문	150,000
김승환	직원	100,000
김영철	직원	10,000
김예솔	동문	100,000
김우일	교원	10,000
김윤신	교원	30,000
김윤주	동문	1,000
김은경	조교	10,000
김익수	교원	10,000
김장성	동문	300,000
김재민	동문	30,000
김재영	교원	300,000
김재철	동문	30,000
김정경	교원	10,000
김정근	교원	90,000
김정연	동문	1,000
김정훈	학부모	300,000
김종범	교원	10,000
김종수	동문	90,000
김지민	동문	10,000
김지연	직원	10,000
김지영	교원	200,000
김지용	교원	30,000
김지혜	동문	10,000
김지훈	동문	30,000
김진호	교원	20,000
김치용	동문	30,000
김태관	동문	10,000
김태성	교원	90,000
김태오	동문	1,000
김한솔	동문	1,000
김현우	직원	10,000
김현희	조교	10,000
김형기	직원	30,000
김혜수	단체	10,000
김호	교원	10,000
김홍섭	교원	1,000,000
김흥근	동문	150,000
노송	교원	10,000
노영돈	교원	10,000
노창근	동문	300,000
농협은행(주) 인천시청지점	기업	100,000,000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한지희학부모)	단체	22,808,575
드론스쿨(주)니즈웍스	기업	1,000,00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드림오피스(세연인포)/김송태	기업	100,000
류인모	교원	10,000
만준우	동문	1,000
명재하	교원	10,000
문경동	동문	10,000
문광선	직원	10,000
문선중	직원	10,000
문연준	동문	1,000
문종욱	동문	30,000
문준영	교원	30,000
문항기	동문	10,000
미림전력/김유신	기업	300,000
박근수	교원	75,000
박민범	교원	30,000
박민지	직원	10,000
박선경	교원	10,000
박선민	단체	10,000
박영돈	교원	30,000
박요한	교원	10,000
박윤양	단체	10,000
박은경	교원	90,000
박일중	직원	10,000
박정연	직원	40,000
박정훈	교원	10,000
박재훈	교원	2,600,000
박종승	교원	310,000
박종태	교원	10,000,000
박주문	교원	300,000
박준기	교원	10,000
박준희	동문	183,500
박지선	교원	150,000
박지원	동문	10,000
박지훈	교원	10,000
박진아	동문	1,000
박진우	교원	90,000
배가람	동문	30,000
배양섭	교원	600,000
백은화	조교	10,000
변윤식	교원	1,500,000
서재신	직원	10,000
서진엔지니어링(주)/박규봉	기업	20,000
서진완	교원	300,000
설경자	직원	160,000
성선경	동문	100,000
성원용	교원	200,000
소대수	동문	150,000
손기윤	교원	2,000,000
손민	개인	10,000,000
손병욱	단체	10,000
손정숙	직원	10,00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손천택	교원	17,200,000
송수민	동문	150,000
송원중	동문	10,000
스튜디오엔뉴	기업	5,000,000
승일자동차공업/김영목	기업	30,000
신경욱	직원	10,000
신민철	직원	10,000
신선혜	직원	10,000
신용권	교원	10,000
신진이	직원	10,000
신천수	직원	30,000
신철호	동문	90,000
신화철	직원	20,000
심광흠	동문	150,000
심규민	동문	1,000
심순애	직원	10,000
심민애	직원	10,000
안광환	직원	10,000
안동찬	직원	30,000
안재희	개인	10,000
안준순	교원	90,000
앤디스 체드	교원	10,000
안남준	동문	1,000,000
양미혜	교원	300,000
양운근	교원	88,893,750
양재영	동문	100,000
양종현	교원	300,000
양하운	개인	300,000
양하준	개인	300,000
양해숙	직원	30,000
양현주	교원	100,000
오복자/국제광고(전우홍)	동문	360,000
오원선	교원	10,000
오익재	동문	100,000
오태근	단체	10,000
오해영	조교	10,000
우요섭	교원	10,000
우인성	교원	90,000
우정욱	직원	10,000
우재대	직원	10,000
원유경	동문	1,000
유경아	동문	10,000
유병순	동문	30,000
유서희	동문	10,000
유재란	직원	10,000
유정훈	동문	150,000
유정희/(주)H에너지	기업	300,000
유종근	교원	300,000
유혜배	교원	300,00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윤기병	교원	10,000
윤덕영	동문	90,000
윤병선	동문	30,000
윤아영	동문	1,000
윤영돈	교원	300,000
윤용	동문	150,000
윤용식	교원	10,000
윤용식	직원	200,000
윤태용	교원	10,000
이건상	교원	10,000
이건희	동문	100,000
이광희	직원	10,000
이근익	동문	300,000
이규한	직원	10,000
이기주	동문	10,000
이길준	직원	10,000
이다예	단체	10,000
이문학	교원	30,000
이미가엘	교원	10,000
이미연	조교	10,000
이병관	동문	300,000
이병기	동문	30,000
이상동	직원	300,000
이상봉	동문	30,000
이상연	동문	150,000
이석기	동문	100,000
이선영	조교	30,000
이선정	교원	10,000
이성민	교원	10,000
이성욱	동문	300,000
이성호	동문	30,000
이수경	동문	10,000
이수아	동문	1,000
이수원	동문	10,000
이승열	직원	150,000
이승민	동문	300,000
이승철	직원	10,000
이애영	직원	30,000
이양현	조교	30,000
이영섭	교원	10,000
이영애	교원	300,000
이용엽	단체	10,000
이원경	교원	200,000
이유리	교원	50,000
이은규	교원	10,000
이은주	교원	300,000
이인호	동문	1,000
이재성	동문	300,000
이정연(임소영)	개인	600,000
이중현	동문	150,00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이중훈	동문	30,000
이주영	직원	10,000
이준혁	직원	10,000
이준호	직원	60,000
이진섭	직원	10,000
이진혁	동문	10,000
이진희	직원	30,000
이찬근	교원	10,000
이찬식	교원	10,000
이창연	교원	90,000
이충훈	교원	10,000
이하늘	동문	1,000
이호수	동문	100,000
이호철	교원	10,000
이효순(국제교류)	동문	10,000
인오피스(송민호)	기업	300,000
인천직업전문학교/유신	기업	50,000,000
임경환	교원	10,000
임동용	동문	10,000
임병미	직원	200,000
임승빈	직원	160,000
임달진	교원	75,000
임정훈	교원	150,000
임주연	직원	10,000
임진욱	직원	150,000
임찬호	동문	1,000
임재희	동문	10,000
임태은	교원	30,000
임효려	직원	2,609,760
임효빈	동문	10,000
장동석	직원	10,000
장소영	직원	40,000
장수영	직원	10,000
장인우	교원	90,000
장정국	교원	10,000
장현주	직원	30,000
장해진	직원	10,000
전경구	교원	10,000
전광길	교원	10,000
전병준	직원	500,000
전성택	교원	300,000
전재철	직원	10,000
전지예	직원	10,000
전현채	교원	10,000
정광호/유카스에너지	기업	300,000
정문영	직원	10,000
정병대	교원	30,000
정연서/신한카드포인트	조교	10,000
정영민	직원	10,00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정영준	동문	1,000
정은선	직원	10,000
정인호	동문	100,000
정주연	직원	10,000
정지윤	동문	1,000
정진우	직원	10,000
정태유	동문	10,000
정해준	교원	10,000
제희태	동문	150,000
조동성	교원	6,000,000
조아영	동문	10,000
조영우	단체	1,000
조주환	동문	150,000
조중휘	교원	460,000
조지영	단체	10,000
조형호	동문	200,000
주정현	직원	10,000
중국교수일동	단체	1,600,000
진도용	교원	10,000
차기울	교원	300,000
채진석	교원	300,000
최계운	교원	10,000
최명중	직원	60,000
최민경	조교	30,000
최서호	직원	10,000
최영민	동문	100,000
최욱	교원	90,000
최윤용	직원	10,000
최일용	직원	10,000
최재혁	직원	30,000
최준호	조교	10,000
최형우	직원	10,000
추성호/인성환경	동문	300,000
하병훈	교원	75,000
한도숙	교원	300,000
한복주	직원	10,000
한상길	조교	30,000
한상혁	직원	270,000
한종민	직원	30,000
한창원	동문	300,000
함향숙	직원	10,000
허광현	학부모	30,000
허성희	직원	40,000
현주희	동문	10,000
홍윤식	교원	100,000
홍진배	교원	310,000
홍현경	조교	20,000
홍현표	직원	10,000
황광일	교원	10,000
황기섭	동문	300,00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황미숙	조교	10,000
황민서/해천이앤씨	기업	300,000
황용	동문	100,000
황재영	동문	100,000
황진아	직원	50,000
황현배	동문	300,00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강상미	직원	16,090
강상혁	교원	27,130
강승택	교원	9,330
강연제	직원	16,600
강치후	조교	22,670
강하라	교원	20,580
강효현	직원	11,380
고덕봉	직원	12,690
고은희	직원	19,080
공용득	직원	15,820
곽문선	조교	16,540
곽준경	조교	8,460
구선희	직원	12,020
권기영	교원	16,480
권오미	직원	8,670
권정호	교원	11,520
권정희	직원	9,870
권혁준	교원	14,320
김강우	교원	7,020
김경아	조교	14,980
김관식	직원	16,360
김광수(A)	직원	20,730
김광수(B)	직원	13,570
김광열	직원	15,840
김기만	직원	15,300
김기준	교원	6,330
김내현	교원	20,330
김동규	직원	21,040
김동배	교원	16,980
김동욱	교원	12,380
김동호	직원	18,130
김복영	교원	20,070
김산청	직원	3,650
김선경	직원	25,220
김선호	교원	15,760
김선희	교원	22,580
김성연	교원	10,420
김성희	교원	10,800
김수진	교원	20,600
김수현	조교	25,200
김순욱	직원	16,630
김순홍	교원	18,200
김승규	교원	6,000
김영주	직원	19,220
김영철	직원	18,560
김영희	교원	18,270
김용민	교원	6,460
김우일	교원	2,630
김윤신	교원	16,160
김은선	직원	18,700
김은영	교원	11,66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김응철	교원	19,850
김익수	교원	29,510
김장균	교원	11,370
김재근	교원	8,610
김재광	교원	16,120
김정민	직원	12,780
김정아	직원	23,350
김정업	조교	3,850
김종호	직원	12,630
김준석	교원	7,440
김진한	교원	7,730
김진호	교원	16,190
김찬주	교원	21,440
김창우	직원	16,480
김태완	교원	22,090
김평원	교원	2,450
김학만	교원	2,740
김현우	직원	6,170
김형근	직원	9,920
김형기	직원	18,890
김혜미	교원	18,680
김환용	교원	8,100
나인강	교원	20,080
나인수	교원	27,100
노지승	교원	10,030
문옥미	직원	17,060
문은호	직원	13,670
민문기	직원	16,030
박문주	교원	13,710
박미선	직원	13,350
박상임	직원	15,520
박시우	직원	26,020
박용호	교원	6,550
박은경	교원	7,730
박재윤	교원	17,150
박재일	직원	24,190
박정승	직원	20,030
박정준	교원	14,770
박정훈	교원	20,340
박종돈	교원	14,820
박종승	교원	13,100
박주문	교원	21,140
박주연	직원	2,450
박지선	교원	8,340
박지훈	교원	26,340
박찬진	교원	9,570
박형의	직원	15,760
박희재	직원	21,430
방동인	직원	6,170
방재한	직원	17,380
배순희	직원	11,68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백종숙	직원	6,790
변윤식	교원	25,190
빈상찬	직원	12,050
서정현	교원	8,470
서종국	교원	11,090
설경자	직원	15,260
손정숙	직원	13,350
송다영	교원	10,900
송상화	교원	25,560
송원용	교원	19,750
송현호	교원	23,680
신광섭	교원	14,940
신미옥	직원	7,670
신용권	교원	19,530
신원태	교원	23,090
신은기	교원	23,820
신현주	조교	19,600
심민석	교원	20,830
심인애	직원	10,510
심형보	교원	11,990
안순길	교원	7,620
안승범	교원	20,960
안영호	교원	11,950
안익태	직원	18,470
안정규	교원	16,400
안춘순	교원	5,120
안호선	교원	27,470
안효진	교원	22,850
양승모	조교	14,330
양운근	교원	14,670
양해숙	직원	15,940
여기태	교원	19,200
여운호	교원	16,810
오원선	교원	17,510
오은하	교원	15,040
오지은	조교	21,620
오혜영	조교	14,970
우금순	직원	23,450
우요섭	교원	24,980
우인성	교원	17,070
우제대	직원	14,660
유은정	조교	12,330
유재란	직원	21,930
유재은	조교	20,760
유종근	교원	18,270
유해경	교원	15,890
유해배	교원	18,540
윤용식	직원	4,900
윤정아(학술정보과)	직원	10,310
윤종구	직원	21,900
윤지영	조교	24,82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윤춘화	직원	4,220
윤태웅	교원	7,150
이건상	교원	15,690
이나영	직원	13,810
이도균	교원	22,120
이동후	교원	13,240
이민철	교원	15,750
이병관(조교)	조교	22,420
이병하	교원	16,440
이병학	직원	13,540
이상동	직원	10,600
이선영	조교	7,380
이승열	직원	17,520
이승매(LI CJENG MEI)	교원	7,390
이승철	직원	7,060
이시자	교원	6,960
이연희	직원	8,570
이영석	교원	15,400
이영수	교원	25,020
이영애	교원	21,310
이운형	교원	21,240
이원경	교원	10,320
이원종	교원	13,470
이원준	교원	14,020
이윤	교원	14,360
이윤정	조교	14,040
이은직	조교	21,440
이종혁	직원	7,460
이준호	직원	18,270
이지영	조교	13,790
이진섭	직원	10,300
이진원	교원	23,990
이진희	직원	18,050
이찬식	교원	15,540
이창길	교원	16,390
이창연(조교)	조교	22,540
이충우	직원	11,670
이향숙	교원	29,740
이황주	직원	9,750
이효은	조교	21,860
이희관	교원	19,070
임경환	교원	12,120
임병미	직원	5,020
임정훈	교원	27,820
임지현	직원	26,070
장서은	직원	28,850
장소영	직원	13,130
장인우	교원	11,900
장진주	직원	27,480
장현주	직원	14,500
장희경	직원	12,00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전동근	교원	7,580
전동진	조교	26,400
전병준	직원	5,780
전석희	교원	14,400
전용재	직원	23,630
전재철	직원	20,690
전지혜	교원	24,590
정경란	직원	13,130
정경찬	직원	3,890
정보람	조교	5,050
정선영	교원	17,050
정승미	직원	13,480
정연서/신원카드포인트	조교	24,030
정영민	직원	15,440
정영식	교원	14,910
정옥경	교원	9,440
정종태	교원	21,540
정해준	교원	21,430
조길수/이남영,조규현	직원	13,960
조명순	직원	25,720
조봉래	교원	2,260
조사옥	교원	6,870
조재인	교원	16,560
조중휘	교원	5,360
조천순	직원	10,490
조현우	교원	20,020
조혜영	교원	15,340
주현태	교원	23,830
차기울	교원	17,690
채속희	교원	5,610
채진석	교원	15,950
천성철	교원	9,910
최계운	교원	15,440
최병길	교원	28,300
최성욱	교원	16,370
최성을	교원	23,760
최성찬	직원	16,540
최영미	조교	17,910
최원	교원	19,450
최윤정	직원	13,370
최윤희	직원	14,480
최은미	교원	17,710
최인수	직원	5,160
최일용	직원	12,360
최재용	직원	15,720
최재혁	직원	10,190
최형우	직원	12,170
한상정	교원	9,580
한상혁	직원	10,350
한승현	직원	16,020

후원자명	구분	납부금액
한양호	직원	10,060
한종민	직원	14,180
허성희	직원	9,320
홍기용	교원	19,230
홍선표	교원	25,950
홍수민	직원	18,680
홍영진	직원	2,370
홍현경	조교	10,680
홍현숙	직원	16,190
황명환	교원	12,690
황미숙	조교	16,730
황미옥	교원	15,010
황병희	교원	17,110
황상순	교원	26,960
황선용	직원	15,170
황영삼	교원	17,790